

흩어진 벼이삭을 그리모으며

민중환

부천대학 교수

1. 내 길을 찾아서

젊었을 때는 소설가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재주가 모자란 탓에 ‘문청시대(文靑時代)’로 마감하고 교직의 길로 들어섰다. 매해 논문 한 편씩을 발표해야 했는데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이가 없었다. 나이가 들어가며 컷가에 흰 머리카락만 늘어갈 뿐 제대로 된 글 한 편 쓰지 못했다. 자책감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월북작가 상허 이태준(1904~?)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방면 소설연구에 조그만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상허학회> 일에 관여하게 되고 그곳에서 젊고 패기에 가득찬 문학연구가들을 많이 만났다. 그러나 이들의 뜨거운 학문적 열정을 목도하면서 어쩔지 않은 내 실력으로는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심하다가 가을걷이를 보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정지 작업이 잘된 논이 벼들은 대부분 자동화된 기계로 수확하는데 벼랑에 심은 벼는 낫으로 일일이 베고 떨어진 이삭은 손수 줍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문학연구는 아니라도 작품을 읽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어휘를 풀이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일을 해 보자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래, 몇 개의 낙수(落穗)라도 타작마당에 보태는 일을 하도록 하자.’

이 일은 전적으로 국어학자들이 맡아 해야 할 일로 여겨지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문학작품에 별반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있다. 황무지를 일구어 개간하는 이 곳은 일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임격정과 함께

첫 삼은 벽초 홍명희의 「임격정」이었다. 대학에서 현대소설을 공부할 때 이 소설의 성가(聲價)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작품을 구해 읽을 수는 없었다. 벽초가 월북작가란 이유로 그의 작품이 봉인된 채 철저히 차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임격정」을 읽지 못했다는 오랜 문학적 열등감에서 헤어날 수 있었던 것은 1985년이였다. ‘타는 목마름’으로 밤새워 이 작품을 읽다가 거기 나타난 우리말 어휘를 외국어처럼 생소하게 느껴야만 했다. 우리말에 무지한 국어선생, 그 심한 자괴감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작품에 나타난 우리말 어휘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가며 카드에 정리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난제에 부딪혔다. 당시 우리 사전들은 이 작품에 나타난 어휘들을 다 수록·풀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의미를 파악치 못한 낱말들은 덮어둔 채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1991~1992년 사이 남과 북에서 새로운 큰사전이 동시에 발간되었다.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전 4권)과 금성출판사 편 『국어대사전』 그리고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 대사전』(전 2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전들은 공통적으로 「임격정」에 나타난 어휘들을 용례로 다루고 있었다. 세 사전의 도움을 받아 그간 미해결인 채 덮어두었던 제반 사항을 보완하여 마침내 한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할 때의 일이다.

도쿄외국어대학(東京外國語大學) ‘조선어과’ 교수의 편지를 받았다. 「임격정」에 나오는, ‘콩을 심으며 가다’가 무슨 뜻의 말인지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팔삭동이가 저의 누님이 사내의 손 잡은 것을 보고 큰일이나 난 듯이 부지런히 콩을 심으며 들어가서 부엌에 있는 백손 어머니와 애기에 말하고 그때 마침 뒤보러 간 백손이에게까지 쫓아가서 말하였다. <제4권>

이 말은,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도 없이 객지에서 떠돌던 박유복이가 홀연히 걱정이 집에 나타나서 섭섭이의 손을 잡고 반기는 것을 보고 팔삭동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선을 떠는 대목에 나오는 관용어이다.

그때 국어사전을 찾아가며 겨우겨우 「임격정」을 읽어 가던 나는 이 편지를 받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외국인이 우리 소설에 나타난 관용어에까지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움에서였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알기 위해 이곳저곳의 유명하다는 학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런 말도 다 있었나?’ 하는 표정이었다. 농사와 연관된 말이라 이번에는 촌로를 찾아가 물었더니 노인은 대답 대신 콩 심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오른쪽 발꿈치로 흙에 자국을 낸 뒤 거기에 콩을 서너 알 떨어뜨리고는 발로 쓸어 덮었다. 또다시 발을 들어 흙에 구멍을 냈다.

그의 반복된 동작을 보고 이 말은, ‘다리를 절름거리며 걸어가다’는 뜻임을 짐작하게 되었다. 일본인 교수에게 답장을 부치고 돌아오면서 「임격정」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애초에 계획했던 단어 풀이 뿐만 아니라 관용어와 속담에까지 조사 영역을 넓혀가기로 마음먹었다.

‘팔삭동이’의 비정상적인 발걸음이 학문의 바른 길을 견도록 깨우쳐 준 큰 계기가 된 셈이다.

3. 속담 더미 속에서

10여년간 「임격정」을 탐독하면서 새삼 우리말의 아름다움에 감복하였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영똥한 생각을 하였다. 북한은 그간 우리 것을 강조해 왔고 또 연변은 '조선'의 정체성 유지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하니 그곳의 문학작품 속에는 오염 되지 않은 순수한 우리 토속어가 술하게 들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과 연변소설을 허발해서 읽어냈다. 그러나 기대했던 '노다지'는 찾지 못하고 대신 낯선 속담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농치구 보니 큰 고기인 것만 같은 아쉬운 생각이 그의 가슴 속을 요글요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농친 다음에야 미꾸라지 이 갈기지 무슨 소용이나. (홍석중, 『높새바람』 ②)

역석이는 부아가 나서 씨근덕거리며

“흥, 그게 좋기도 하겠소. 개 잡은 포수처럼 꺼덕거리지 마우!”

하고 이근식이를 쏘아주었다. (류원무, 『일어서는 풀』 ㉔)

앞의 예문은 북한, 뒤의 것은 연변소설이다. 여기에 나오는 '미꾸라지 이 갈기'라든지 '개 잡은 포수' 따위의 말은 이기문의 『속담사전』을 비롯한 당시의 남한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생경한 말이었다.

앞으로 북한과 연변의 문학작품을 대하게 될 때 이 점이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통합 속담사전 작업에 착수하였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즈음 이만기 선생이 한 속담사전을 들고 나타났다. 이 사전은 남북한의 속담을 합친 것이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내가 한 걸음 늦었던 것이다. 허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동안 실의에 싸여 지냈다. 그러다가 꿩 대신 닭이라고 남한의 속담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북한과 연변의 속담집에만 있는 내용만을 가려 뽑아 「꽃은 웃지만 소리가 없다」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 나섰다. 예상치 않은 속담 더미에 빠져 2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된 셈이다. 애초에 의도한 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속담을 통해 우리말 이해의 폭을 더 한층 넓히는 전기가 되었다.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고 했던가.

4. 관촌 마을을 거닐며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내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이웃의 아동문학가 강정규 선생이

“이문구 해봐유.”

하였다.

“이문구?”

밀저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그의 대표작으로 정평이 난 「관촌수필」을 손에 들었다.

그 해 팔월 십오일 광복절. 아침부터 마을은 온통 무슨 명절을 맞은 기색으로 술렁거리며 기꺼운 표정이었다. 방학 중이어서 그 집 마당이 가득하게 들어차 놀던 아이들 틈에서 나도 일찍부터 뒤섞이어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앞 신작로로 지나갈 버스는 오후 네시경이었으므로, 나는 무려 여섯 시간 이상을 그 마당 귀퉁이에 서 있었고 거의 하루 해를 에우다시피한 셈이었다. 점심때쯤부터는 성기하게 빗방울이 들어 개오동 앞새마다 얼룩무늬를 두었고, 그것은 차츰 여러지면서 촘촘한 부슬비로 변했으며 실금실금 뿌려지는 대로 거미줄마다 부슬비가 꿰어지자 거미줄은 잘 닭인 은쟁반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보였다.

여기에 나오는 넉넉한 우리말 표현을 보고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산너머 남촌」의 다음 글을 보고는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저녁참이 겨워 아지랑이가 이내로 변하자 산그림자가 만나마나 접어놓은 들녘이 어려서 외가에 다녀오던 기억처럼 푸근하고도 호젓해 보였다.

먼발치의 동산 자드락을 나누어 가진 묵은 집들은 뒤꼍마다 저물어서 어스름이 서리고, 문 닫힌 마을회관 앞에 들어온 희읍스름한 버스는 학교가 더디 파한 아이들을 한마당 그들먹하게 부려주고 서둘러 모퉁이로 돌아간다. 염소 마리나 들여메던 조무래기들은 푸새가 옷자란 길곶턱에 모여 팔매질에 뽀박질에 판전보기 정신없고, 수명이랑 붓도랑 곁에 설명하게 키만 있는 미루나무 꼭대기의 까치둥지에는 익다 만 치자빛 노을이 설핏하니 비껴 있다.

특히 “……설명하게 키만 있는 미루나무 꼭대기의 까치둥지에는 익다 만 치자빛 노을이 설핏하니 비껴 있다.”에 이르러서는 그만 이문구에 매료되어 그의 전작(全作)을 정독하게 되었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작품에는 토박이말과 방언·비속어·속담 뿐만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는 관용어와 개인적 어휘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가물치 쿡구멍’, ‘경복궁 메방아 공사’, ‘개갈 안 난다’, ‘고뽕 떴 넋할미 같다’, ‘김치 속의 새우젓으로 안다’……. 이것들이 다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란가? 하고 편지를 내면 선생은 대천 앞 바다와 같은 넉넉함으로 상세한 풀이를 답신으로 보내 주곤 했다.

하루종일 모래를 체에 쳐 작은 알갱이를 골라내는 사금채취공 같은 정성으로 5년여의 세월을 보냈다.

5.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최근 3년간은 송기숙 작품 속에서 ‘녹두장군’도 만나고 ‘자랏골의 비가’도 들으며 바빠 지냈다. 금년 여름 송선생은 4백여 장이 넘는 내 원고를 검토하느라 땀깨나 좋이 흘리셨으리라. 여섯 번째 이 메일 답신을 보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대로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첨부하셨다.

다음 번에는 또 김주영 선생을 괴롭히려고 단단히 베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런 작업은 결국 작가들에게 누(累)나 끼치고 죄짓는 행위 같이 여겨져 우울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천천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악업(惡業)을 쌓아갈 것이다.